

램지어의 오류는 오롯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학계가, 우리 언론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못해 서다. 그것을 지금 국제 학계가 세계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다. 3·1혁명의 정신은 독립선언서 첫 대목에 나와 있듯이 ‘독립국과 자주민’이다. 한 마디로 자주 독립이다.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검증 모습을 보면 3·1 혁명 정신과 정반대다.

‘남’에 의해 얼은 해방이 결국 ‘분단’으로 이어졌다. 주권국가인 지금 위안부 문제 극복을 남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자문해야 한다. 10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3·1혁명 정신은 진정 살아 있거나 한 것인가.

- 머릿글에서



우사 김규식 · 몽양 여운형 어록비 건립

독립기념관 경내에는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국난 극복에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시와 어록을 새긴 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짧은 글귀 속에서 그들의 정신과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손꼽히는 독립운동가인 우사 김규식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두 분의 어록비가 없다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시던 두 분, 김수옥 우사김규식연구회 회장과 이부영 전 몽양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어록비를 공동으로 건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019년 9월이었다. 이후 수 차례의 어록비 건립에 관한 실무회의를 거쳐, 비에 새길 어록을 뽑고 이를 잘 표현할 만한 작가를 선정하여 2020년 12월 29일 추운 겨울 104번째 어록비를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봄기운 가득한 2021년 3월 17일 뜻깊은 제막 행사를 하게 되었다.

권두 인터뷰 한시준 신임 독립기념관장06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20

“나라가 하지 못한 보훈사업, 우리의 사명”28

민화협-롯데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펼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자주독립정신과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원희복

편집위원 | 곽태원, 박덕진, 최석우, 이상혁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kopogo.kr

- 03 이 달의 독립운동** 윤봉길 의사 흥커우공원 의거(1932.4.29) | 편집부
- 04 머릿글** 우리 안의 3·1혁명은 살아 있는가 | 원희복
- 06 권두 인터뷰 – 한시준 신임 독립기념관장**
 -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역사를 발전시킨 원동력”
 - 독립기념관 존재와 가치, 세계에 알리겠다 | 편집부
- 12 우사 몽양 어록비 제막식** 우사 김규식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의 합동 어록비 건립 | 신창기
- 20 지상중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 편집부
- 26 청년에게 듣는다** “오늘날의 독립운동가로 정진하겠습니다” | 전인영
- 28 롯데장학사업** “나라가 하지 못한 보훈사업, 우리의 사명”
- 민화협-롯데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펼쳐 | 편집부
- 30 지면으로 보는 2021 보훈정보**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 편집부
- 32 임정서가**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 편집부
- 33 독립정신 이모저모**
- 35 회원 동정**

윤봉길 의사 흥커우공원 의거(1932.4.29)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공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인애국단 소속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하여 일제 요인을 폭사시킨 의거. 일제는 4월 29일 흥커우공원에서

제1차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 일왕 탄생기념 행사를 열었다. 이에 한인애국단 소속 윤봉길 의사가 일제 요인들을 향해 폭탄을 투척, 일본군 사령관 육군 대장 시라카와(白川義則), 해군 중장 노무라(野村吉三郎), 육군 중장 우에다(植田謙吉), 주중공사 시게미쓰(重光葵), 민단장 가와바타(河端貞次), 총영사 무라이(村井倉松)를 즉사시키거나 중상을 입혔다. 의거에 성공한 윤봉길은 자폭을 기도했으나 일본군에게 붙잡혔다. 오사카로 이송된 후 12월 18일 총살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 의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드높이고 활력을 불어넣은 의의가 있다. 특히 일제의 침략을 받은 중국인들을 열광시켰고, 당시 중국의 통

치자인 장제스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안의 3·1혁명은 살아 있는가



원희복
편집인
전 경향신문 부국장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일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논문에 대해 세계적 비난이 일고 있다. 세계의 학자들이 그 논문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결국 그는 ‘매춘계약서가 없다’고 실토했다. 출판사는 램지어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학계에서는 그가 쓴 이전 논문도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미 램지어는 ‘일본 조직폭력배는 대부분 조선인’이라는 엉터리 논문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일본 우익자금으로 학자 행세를 하던 ‘국제 어용학자’의 천박한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학문 세계는 그만큼 객관적 증거와 논리가 지배한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 한두 번이 아닌 몇 차례 이어졌다면 그는 학계에서 당연히 퇴출돼야 한다. 게다가 그의 교수직이 일본 자금이며, 그 대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면 이는 학자라기보다 장사치에 불과하다. 지금 램지어에 대한 세계적 비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램지어의 이런 엉터리 논문 배경이 된 사람이 있다. 바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박유하 세종대 교수, 극우논객 지만원 씨 등이다. 뉴

라이트의 핵심 인물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도 있다. 이들이 “(매춘)업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여성을 모집했다”며 “군대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올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을 램지어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램지어의 엉터리 논문의 근거는 바로 우리 한국인이 제공한 것이다. 사실 미국 국제법 교수가 100년 전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얼마나 1차 자료를 갖고 연구했겠는가. 대부분 2차 자료를 가지고 자금을 지원하는 일본의 입장에 맞게 꿰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그 2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뉴라이트이다.

따라서 지금 램지어 논문에 대한 국제적 검증에 대해 이영훈, 안병직, 박유하 등도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특히 램지어의 엉터리 논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던 박유하는 뭐라 해명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논문과 글을 인용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램지어를 변호하거나 최소한 위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학자적 양심을 떠나 인간이라면 당연한 도리다.

또 아쉬운 점은 국제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치열한 검증이 이뤄지지만 정작 우리 역사 학계는 의외로 조용하다는 점이다.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학자들의 주장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아서일까. 오히려 일부 학자와 언론은 이영훈 안병직 박유하 등 뉴라이트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문제를 세계 학계가 치열하게 논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학계는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추진했던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문재인 정부의 관계 민족주의’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청산 작업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과 같다고 주장한다. 어찌 역사청산 작업을 시대착오적인 국정 역사교과서와 비교하는가. 우리 만큼 과거사 청산작업이 미친했다고 지적을 받는 나라는 없다. 최 교수는 요즘 학자라기보다 현실 정치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이는 ‘우리안의 친일’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외교부도 조용하다. 일본과 역사문제에서 외교부는 항상 ‘실의’를 강조하며 과도한 민족주의를 우려한다.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솔한 사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일본, 거꾸로 극우적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을 왜 지적하지 않아야 하는가.

는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논문이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 3·1절 대통령 기념사도 일본에 대해 매우 ‘완화’ 됐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단호한 단어를 사용했던 과거 3·1절, 광복절 기념사에 비해 달라진 모습이다. 단호한 표현을 했던 작년, 재작년도 그랬지만 그런데도 일본은 이를 비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있다.

결국 램지어의 오류는 오롯이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학계가, 우리 언론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못해서다. 그것을 지금 국제 학계가 세계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다. 3·1혁명의 정신은 독립선언서 첫 대목에 나와 있듯이 ‘독립국과 자주민’이다. 한 마디로 자주독립이다.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검증 모습을 보면 3·1 혁명 정신과 정반대다.

‘남’에 의해 얻은 해방이 결국 ‘분단’으로 이어졌다. 주권국가인 지금 위안부 문제 극복을 남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자문해야 한다. 10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3·1혁명 정신은 진정 살아 있거나 한 것인가.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역사를 발전시킨 원동력” 독립기념관 존재와 가치, 세계에 알리겠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함께 일도 많이 하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는데,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독립기념관은 어떤 곳입니까?

“고맙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힘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우리의 역사를, 독립운동의 실상을, 독립 쟁취를 기념하기 위해 지은 것이지요. 독립기념관이 건립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독립운동에 관련된 기념관이라고만 인식해 왔지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념관이라고만.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기념관입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연구자, 일반 국민도 그렇고, 독립 운동이라고 하면 일본과 싸운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한국의 독립운동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요. 20세기 전반기에 지구상의 전 민족 중에서 80%가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했지요. 독립한 후에 그 독립운동을 했던

한시준(66) 전 단국대 교수가 2월 25일 제12대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다. 한시준 관장은 독립운동사 연구의 외길을 걸은 역사학자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임시정부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았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맡아 본 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준 바 있다. 「독립정신」이 한시준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만났다.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이러는 나라가 한국이 거의 대표적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존재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대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독립운동의 의미, 독립기념관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이걸 국민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이 건립된 지 34년이 지났습니다. 방문한 국민이 연인원 7천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념관이 존재 의의를 더 알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게 됐나요? 우리는 지금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시대에 살게 됐는지, 이런 변화가 어떻게 왔는지. 그것은 바로 독립운동이 이룬 변화지요. 독립운동 과정에서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1독립선언서에 우리는 독립국이다. 이거를 선언하고, 40일 후에 그 독립국을 세운 게 대한민국이지요. 국가는 형체가 없으니까, 그 형체



독립기념관 본관 겨레의 집

를 유지하는 게 정부지요. 그 정부를 세우면서, 정부의 이름을 임시정부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국민이 내가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독립운동 덕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게 됐지요.”

한시준 관장은 “우리가 단군이 세운 고조선부터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반만년 역사를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독립운동이 지금 우리를 국민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살도록 만들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관장은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습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이래 한반도에 있던 모든 나라의 주인은 줄곧 군주였어요. 국민이 아니었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통해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선포했어요. 민주공화제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독립정신, 불가능에 도전하여 가능을 창조한 정신

대한민국을 만든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의 역사를 집대성한 독립기념관의 존재 의의를 알리



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독립운동이 단순히 일본과 싸운 것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게 수없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의 생각은 단순히 일본과 싸운 것만 생각하지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독립기념관은 일본과 싸운 것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엄청나게 바꾸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도, 우리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도 독립운동이 쓴 역사다, 우리 삶의 기초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의미와 맥락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것 이지요.”

한시준 관장은 우리 독립운동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연합국과 함께 싸워서 독립을 얻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해방은 단지 연합국 승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국과 함께 싸워서 얻은 게 독립”이라는 뜻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떠올릴 때 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국민이 많지만, 한 관장은 “우리는 당했지만, 우리가 싸워서 그걸 이겨냈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독립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자산이 있지요. 흔히 독립운동을 한 마디로 비유할 때 계란으로 바위 치기,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일본이 당시 세계의 강대국인데,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려고 도전한 것이지요. 결국 일본은 패망하고 우리는 독립을 쟁취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게 독립운동이고, 독립정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그 정신이지요.”

한시준 관장은 취임하면서 독립기념관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불가능에 도전하여 가능을 창조한 독립정신”을 내걸었다.

“우리는 일본에 40년 가까이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연속해서 3년 동란을 치렀습니다. 엄청난 민족의 시련이지요. 그러

나 우리 민족은 얼마 안 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그 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보통 한강의 기적, 이러지 않습니까? 기적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비결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그 정신이 뭐냐, 그 정신이 바로 독립정신이다. 그 독립정신을 널리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런 힘을, 에너지를 독립기념관에 오면 국민이 받는다는 것이지요. 독립정신을 배양하고, 그게 몸에 배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가 더 발전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독립기념관을 만들고 싶은 것이지요.”

한시준 관장은 지금까지 독립기념관 전시가 ‘청산리대첩에서 일본군을 몇 명 사살했다’처럼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독립운동의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 외에 각종 기념사업회, 개인 기념관이 많잖아요? 그렇게 여럿이 있는 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 알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지요. 고유의 기능이 있지요. 그렇지만 독립운동의 역사는 그저 옛날에 있던 것만 해서는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되지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자꾸 새로운 연구를 하고 성과를 생산하는 곳이 독립기념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방향을 정하

권두 인터뷰 – 한시준 신임 독립기념관장

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독립기념관이 각 기념관과 기념사업회들과 더 관계를 맺어야지요. 독립운동사 연구가 197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21년 현재 이루어진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받아안아서 우리 독립운동의 진면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준 관장은 독립운동 전문 연구자로서는 최초의 관장이다. 한 관장은 올해 말 개관할 국

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중요한 역할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지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갖는 역사적 의미, 가치를 국민이 잘 모르지요. 기념사업회는 임시정부에 대해 잘 몰랐던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독립기념관 전경

권두 인터뷰 – 한시준 신임 독립기념관장

• 한시준 프로필 •



한시준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은 대표적인 독립운동 연구자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의 권위자다. 박사학위 논문인『한국광복군 연구』는 사료 분석 및 현장답사와 생존자 증언 교차 검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행한 독립 전쟁의 실체를 집대성했고, 월봉저작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이 1919년 4월 11일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이도 한 관장이다.

독립기념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예전처럼 대규모 관람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전시·교육 사업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다. SNS를 활용해〈내 손 안의 독립기념관〉등 교육프로그램, 공무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 사적지 주제의 온라인 연수 콘텐츠 2종을 개발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역사교육 취약 계층은 물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교구재)를 배포했다.

전시 사업 또한 사이버 전시관으로 구축해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사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가정용 해설서, 해설 영상, 도록 등 다양한 전시관람 콘텐츠를 개발했다.

독립기념관은 국민이 손쉽게 독립운동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한국독립운동인명 사전』웹사전 서비스를 개시하고 144명의 독립운동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했으며, 광복군을 주제로 한 해외 사적지 e-book을 발간해 모두 40여 개 사적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여성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강연을 개최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해 국민이 독립운동사에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0만2천여 명이 독립기념관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이용했다. 이는 기존 방문교육 인원 약 3만 명의 네 배 가까운 수치다. 독립기념관은 올해에도 비대면-온라인 신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사 김규식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의 합동 어록비 건립

- 독립기념관 시·어록비공원에서 제막식 열려 -



신창기
(사)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독립기념관 경내에는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국난 극복에 헌신한 애국선열들의 시와 어록을 새긴 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깊은 글귀 속에서 그들의 정신과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손꼽히는 독립운동가인 우사 김규식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두

분의 어록비가 없다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시던 두 분, 김수옥 우사김규식연구회 회장과 이부영 전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어록비를 공동으로 건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019년 9월이었다. 이후 수 차례의 어록비 건립에 관한 실무회의를 거쳐, 비에 새길 어록을 뽑고 이를 잘 표현할 만한 작가를 선정하여 2020년 12월 29일 추운 겨울 104번째 어록비를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봄기운 가득한 2021년 3월 17일 뜻깊은 제막 행사를 하게 되었다.



우사 몽양 어록비 전경

어록비에는

비의 디자인을 맡은 민중 화백 임옥상 작가는 두 분이 평생 독립운동의 핵심 뜻으로 내세운 ‘자주’와 ‘독립’, 그리고 어록을 글자로 새겨 오래도록 그 뜻이 전해질 수 있게 하였다.

오른쪽 비문에는 우사 김규식 선생의

“전 세계의 동정만 가지고는 독립을 얻을 줄로 생각지 맙시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손으로만이 되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맘으로만이 되옵니다. 우리의 독립은 우리가 단결하여 싸우되 마지막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싸워야 되옵니다.”

– 파리강화회의 직후 동포 앞에서

“나의 경애하는 동포여! 분발하여 오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나중의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의 나중 한 사람이 거꾸러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쉬이지 말고 낙심도 말고 혈전을 계속합시다.”

– 파리 체재 중 김규식 박사가 미국 대한국민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新韓民報』 1919년 10월 18일)

왼쪽 비문에는 몽양 여운형 선생이 남긴

“조선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 우리가 건설하려는 국가는 인민이 주인이 되어 인민을 다스리는 국가일 것이다. 이 민주공화국은 대한민족의 절대적 요구요, 세계 대세의 요구다.”

– 1919년 11월 27일 도쿄 제국호텔 연설문 중



김수옥 회장과 여인성 이사



어록비를 만든 임옥상 화백

우사 몽양 어록비 제막식



어록비 제막식을 앞두고, 서중석 성대 명예교수, 김원웅 광복회장, 김수옥 우사김규식연구회 회장, 장영달 몽양기념사업회 이사장

“제군은 비록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있지만 등에는 한반도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하는 손기정 등

선수들에게 준 조선 체육의 아버지 여운형의 격려사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두 분의 말씀을 어록으로 새기는 이유

서중석 교수(우사김규식연구회 고문)는 비에 새겨진 우사 어록은 “독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민족적 역량을 최대한 모아야 하고, 민족역

량을 최대한 규합하여 일제로부터 조국의 해방을 맞이해야 한다고 역설한 우사 김규식 선생의 정신이 잘 녹아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은, “신한청년당 결성, 2·8도쿄유학생 독립선언, 파리강화회의 독립청원 시도, 3·1독립 만세운동 폭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적들의 심장인 도쿄 제국호텔에서 조선의 자주 독립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거침없이 밝힌 몽양의 연설 등은 초기 독립운동이 표출된 일련의 사건들”이라며, “손기정 선수의 올림픽 우승 역시 민족의 총체적 독립 의지가 과시되고, 독립운동으로 드러나도록 노

우사 몽양 어록비 제막식



감사 말씀을 하는 김수옥 우사김규식연구회 회장(우사 손녀)



기념사를 하는 장영달 몽양기념사업회 이사장

력한 과정이었다”고 말하였다. 또 “일장기를 가슴에 달기 싫어 올림픽 출전을 망설였던 손기정 선수에게 ‘비록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어도 등 뒤에 한반도를 짊어지고 뛰어라!’라고 한 말씀은 몽양 여운형 선생의 건민(健民) 정신을 읽을 수 있기에 비에 새겨 미래 세대에 전해 줄 만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회 회장 김수옥 여사, 장영달 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여운형 선생 후손인 여인성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 김원웅 광복회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독립기념관에 몽양 어록비를 모시는 까닭

장영달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조국분단 76년, 이제야 여기 독립기념관 마당에 몽양 여운형 선생 어록비를 제막하는 것은 못난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 오늘 우리는 늦은 만큼 독수리의 눈으로 어록비를 여기에 정중히 모시고 각자 마음속 깊이 ‘떨쳐 일어나리라!’는 다짐을 심장에 새기려 한다.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여기 새겨진 몽양을 생각하며 수많은 독립선열의 영혼을 따라 도도히 흐르는

제막식

지난 3월 17일 천안 독립기념관 시·어록비 공원에서 우사 김규식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의 공동어록비 제막식이 있었다. 조국이 분단된 후 칠십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비록 독립기념관 마당에서 어록비를 통해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손을 맞잡았으니 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이 자리에 김규식 선생 후손이자 우사김규식



축사 하는 김원웅 광복회장



독립기념관을 대표해 축사 하는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물결 가운데 한 개 물방울이 되어 마침내 ‘남북 통일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웅 광복회장은 “두 분이 납북과 암살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을 때까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이 어록비를 통해 느껴져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또한 우리의 독립은 우리가 단결하여 마지막 핏방울이 다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우사 선생님의 말씀과, 조선의 독립운동은 한민족의 각성의 발로이며 우리가 건설하려는 국가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몽양 선생님의 말씀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들의 고뇌와 혜안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여 등장한 정당, 조중동 등 주류 언론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회복하려고 온갖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자주·독립’이라는 우사와 몽양 선생님의 간곡한 뜻을 우리 시대에



유족 인사를 하는 여인성 몽양기념사업회 이사(몽양 후손)

이어받는 것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자주’ 와 ‘독립’을 따로 새긴 것에 대해

‘자주·독립’ 만큼 두 분의 삶을 잘 드러내는

표현을 찾기도 어렵다. 두 분이 ‘따로 또 같이’ 자주독립을 위해 노력한 각자의 삶을 강조하고자 두 낱말을 나누어 쓸 것을 제안하였다. 임옥상 작가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자주’와 ‘독립’ 두 낱말은 따로 써도 넉넉히 상대방을 함축하지만, 나란히 어울려 쓸 때 그 뜻이 더욱 잘 드러나고 선명해질 것이다.

한편 작가의 디자인은 ‘사람이 실제로 깃들면서 완성’ 되는 개념에 기초해 있다. 그러니까 임옥상 작가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놀이터가 되는 어록비를 구상’ 하였던 것이다. “저 멀리 떨어져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그저 우러러보기만

하는 비는 묘비와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자주와 독립의 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을 살려 가운데를 뚫어 들고 날 수 있게 하는 한편,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다시 고개를 들면 앞에 산 정상이 보이도록 시선의 축을 가지런히 하였다.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놀이터가 되는’ 작가의 뜻을 살리는 동시에, 앞으로 이 비가 ‘민족을 앞세워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으려 했던 두 분의 통합과 융화의 정신을 본받아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큰 가르침을 주기를 바란다. ☟



변상아 한국민족총협회 청년위원장의 기념공연

우사 몽양 어록비 제막식

〈우사 김규식 연보〉

- 1881 경남 동래에서 청풍김씨 김지성과 어머니 경주이씨의 3남으로 출생(1.29)
- 1897 미국 로노크(Roanoke) 대학에 입학(1903년 졸업)
- 1913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운동과 중국혁명에 뛰어들
- 1919 신한청년당 · 대한국민회 ·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서 활동
- 1922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 1923 상하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창조파로 활동
- 1932 대일전선통일동맹 · 중한민중대동맹 결성
- 1935 중국 관내 정당들을 통합해 민족혁명당 결성
- 1944 대한민국임시정부 약헌 개정, 부주석 취임
- 1945 개인 자격으로 김구 등과 함께 32년 만에 귀국(11.23)
- 1946 민주의원 의장 대리로 미소공동위원회와 함께 임시정부 수립 활동
- 1946 김규식을 우측 수석대표로, 여운형을 좌측 수석대표로 한 좌우합작위원회 성립
- 1946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12.12)
- 1947 민족자주연맹 결성, 주석 취임(12.20~21)
- 1948 남북협상(4.26~30)
- 1950 평안북도 만포진 별오동에서 서거(12.10)
- 1989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몽양 여운형 연보〉

- 188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묘골 출생(5.25, 음4.22)
- 1900 배재학당 입학
- 1908 부친 탈상 후 집안의 노비 해방, 서울 승동교회 전도사 활동
- 1911 YMCA 운동부장, 청년운동 전개
- 1914 중국 망명, 난징(南京) 진링(金陵)대학 영문과 입학
- 1917 교민 자녀 배움터인 인성학교 설립
- 1918 신한청년당 창립
- 1919 3·1운동 기획 · 추진, 임시의정원 의원 및 임정 외무차장 역임
도쿄 제국호텔에서 독립 주장 연설, 하라 다카시 내각 무너짐
- 1922 모스크바 극동피압박민족대회 참석
- 1929 상하이에서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 수감
- 1933 조선중앙일보 사장 취임
- 1936 손기정 선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일장기 말소사건, 조선중앙일보 폐간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체포, 2차 투옥
- 1944 지하항일조직 '조선건국동맹' 결성
- 1945 8·15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 전국 시 · 군 결성, 조선체육회 11대 회장 취임
- 1946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 통일정부 수립운동 전개
- 1947 조선올림픽위원회 초대 위원장 취임, 혜화동 로터리에서 테러로 서거(7.19)
- 2008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장강일기』 ·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일본어판 출판기념회

패밀리 히스토리로 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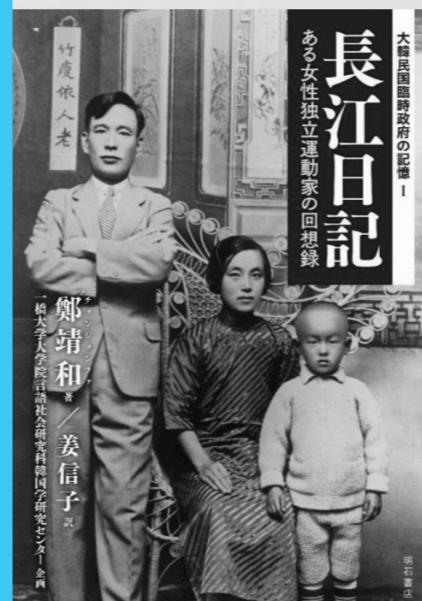
일시 : 2021년 4월 10일 (토) 16:00 ~ 17:30

장소 : ZOOM Meetings (ID : 979 281 8534 / Passcode : K1284j)

사회 : 이규수 (히토쓰바시대학)

여는말

이연숙 (히토쓰바시대학)



<기념영상>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김자동 회고록

<기조연설>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이사장)

I. 작은 목소리로 전해져 온 사람들의 기억

강신자 (작가)

II. 소년의 기억, 해방 후의 혼란과 민주화 투쟁

송연옥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명예교수)

III. 일본 사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억

와타나베 나오키 (무사시대학)

닫는말

김선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사)

<주최>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언어사회연구과 한국학연구센터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문의 : hitokanken@gmail.com

URL : http://kanken.gensha.hit-u.ac.jp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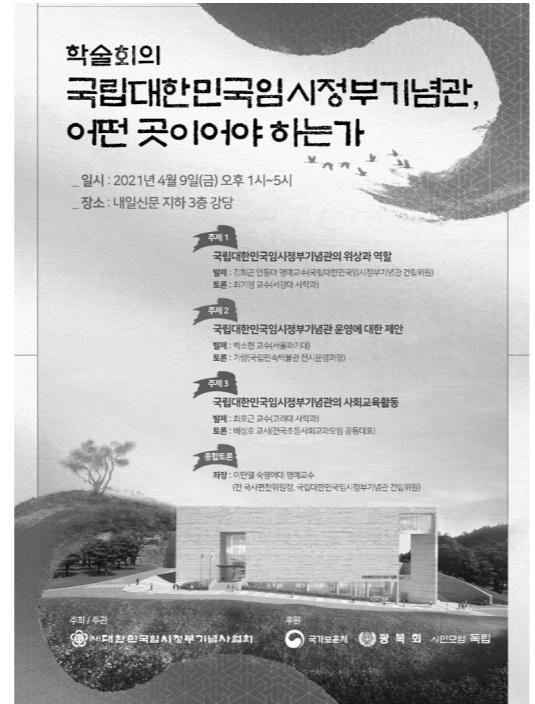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학술대회 열려 -

「독립정신」 편집부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광복회·시민모임 독립이 후원하는 학술회의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가 4월 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내일신문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는 올해 말 개관을 앞둔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소프트웨어 보완 문제를 민간차원에서 제기하고자 함이다. 지난해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기공함으로써 기념관의 하드웨어는 틀을 갖추게 되었으나, 전시 운영 및 교육 등 기념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피더라도 기념관 및 박물관의 위상과 역할, 운영 형태, 사회교육 활동과 관련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라는 실체를 두고 진행된 논의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고민과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본 회의 창립 목적이자 숙원이었으며,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단으로 국민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기공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국



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학술회의는 기념관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할지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기념관의 내적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념관 개관을 미리 알리는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본 회는 이번 학술회의의 성과를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단과

공유해 개관 이전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은 학술회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15년 11월 본 사업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통해 건립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고 지난 경과를 짚고 나서, “이제는 기념관에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면 국민에게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이번 학술회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법통의 원천”이라고 전제하고, “오늘 학술회의가 큰 성과를 올리고 그 성과에 걸맞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그 정신에 따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학술회의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는 △위상과 역할 △운영에 대한 제안 △사회교육 활동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루며, 김희곤 안동대 명예교수(건립위원), 박소현 서울과기대 교수, 최호근 고려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토론에는 최기영 서강대 교수, 기량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배성호 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대표가 나선다. 좌장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건립위원)이다. 「독립정신」 지면을 통해 발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국가사(國家史)의 정맥(正脈)을 세우는 기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가지는 위상에 대해, 제1 발제를 맡은 김희곤 안동대 명예교수는 기념관이 “국가사(國家史)의 정맥(正脈)을 세우는 기관”이라는 대전제 아래 △대한민국의 기원과 계승·정통성을 전명하고 △세계사 차원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가치를 내세우며 △한국사의 발전성을 증명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제가 심어준 박물관의 기본 틀이 ‘고고·미술·민속’ 이었다. 박물관이 한민족의 역사발전을 담아내는 순간, 식민사관의 핵심인 정체성론이 무너진다. 그러니 일제로서는 박물관 속에 한국 역사의 발전을 배제시켰다. 그런데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국립박물관은 일제가 심어둔 틀에 빠져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곧 대한제국 멸망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르는 시간적 공간을 주체성을 갖고 연결시키는 국가사 차원의 일이다. 나라를 되찾은 지 70년도 더 지나서야 제대로 된 맥을 보여주는 기념관을 세운다는 사실은 한참 뒤늦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를 세운다는 사실만으로도 바른 역사 정립과 표방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다.”

“독립운동사를 다루는 기념시설들이 한국사의 정통성을 완결시키지는 못한다”는 게 김희곤 명예교수의 현실 진단이다.

“독립운동사를 다루는 이들 기념시설들이 한국사의 정통성을 완결시키지는 못한다. (...) 이들 시설들이 국가 정통성의 한 부분들을 잇는 가닥이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사 차원에서 연결성과 정통성을 보여주기에는 모자라는 한계를 지닌다. (...) 대체로 독립운동을 주제로 담은 기념관이나 박물관에서는 임시정부에서 (정식)정부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계승성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다. 흔히 ‘상해임정이 중경에 있을 때 어떠했다’로 표현되듯이, 그 존재는 그저 ‘상해임정’이었을 뿐, 독립운동으로 세운 한국사 최초의 근대국가인 대한민국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다.”

김희곤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국립으로 세우는 목적이 “주체적인 인식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정맥을 담아내고 그 사실과 가치를 세계에 전명하는 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지며, “한국사의 독자적인 발전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신을 확인시켜주는 국가 차원



기념사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리고 1945년 11월 23일은 해방 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이 환국하신 날입니다. 작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이 열렸고 한국일인 오는 11월 23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앞에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펼쳐갈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1절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을 공표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본 사업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통해 건립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기념관에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면 국민에게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기념관 건립에 참여하였던 분들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는 현재 건립 중인 기념관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국민에게 선보일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독립정신을 국민에게 널리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기념관의 역할을 명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학술회의의 큰 성과를 기대하며 학술회의를 준비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4월 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김자동

의 기념관”이라고 설명한다.

김희곤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연구 센터 기능(▷자료 발굴·수집, 유적지 조사 지속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전문 아카이브 구축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연구 주도 ▷세계적인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정통성 인식을 정착시킬 전문적인 교육기관 △독립운동 근대국가건설론 정착과 정체성이론 극복 △미래지향적인 인식형성 선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를 알리는 구심점(▷세계 독립운동사 차원의 기획 전시 ▷기획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이종찬입니다. 오늘 개최한 연례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축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 한 것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용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약 2년이 늦은 셈입니다. 원래 2019년 100주년에 개관이 목표였지만 2년 뒤에 시작되어 올해 11월 23일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45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한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맞춰 기념관을 개관하고자 현재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10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법통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그 법통을 어떻게 이어받았느냐는 것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제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대해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시는, 사계의 권위이신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는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된 과정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회의가 큰 성과를 올리고 그 성과에 걸맞게 저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도 그 정신에 따라 건립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이 학술대회가 큰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4월 9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이종찬

전시의 공유와 교육현장 연계 ▷ 대중매체에 소재 제공 ▷ 관련 유적·기념시설 연계)을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임무와 역할로 제시한다.

김희곤 명예교수는 발제 맺음말에서 “이념과 방략의 차이는 갈등을 가져왔지만 끝없는 노력으로 끝내 좌우통합정부를 달성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는 “통일국가 건설에 대한 꿈을 갖게 만들 것”이라며, 기념관이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안 또는 이상적 모델로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2 발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에 대한 제안’을 맡은 박소현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립’의 불안정한 제도적 위상을 먼저 짚었다. 국가적 기념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국립’ 기념관의 건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모호하고, 특히 임시정부기념관의 건립 추진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에서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이라는 법적 정의를 담은 조항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년 제정)의 ‘현충시설’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자.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을 말하며, ‘국민의 애국심

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했다(제74조의2, 제74조의3). 또한 제74조의4는 국가 및 지자체 외의 주체가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다. 즉, 이 법률에는 ‘지정’ 및 ‘건립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은 있으나, 국가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경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기념관으로 간주되는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이 <독립기념관법>과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해 건립·운영되고 있는 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게 박소현 교수의 설명이다. “국가가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지배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음으로써 ‘국립’이 아니라 ‘사립’으로 분류”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국립’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단순히 ‘국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설립·운영 주체를 법률적·행정적 차원에서 국가로 규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박소현 교수는 주장한다.

박소현 교수는 “국내외에 산재하는 임시정부의 사료들, 사적지들, 기념공간들, 기억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유의미하게 연결,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생산, 적극적인 소통·해석, 토론·성찰 등을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국립’ 임시정부기념관이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국내의 특정 박물관들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소극적 방식”보다는, “기존 박물관들에 대한 대안 또는 이상적 모델로서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운영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지나가버린 과거’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제3 발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사회교육활동’에 나선 최호근 고려대 교수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지나가버린 과거’로 만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최호근 교수가 반면교사로 든 사례는 4·19 기념사업으로, △과잉 추모 △Top-Down 기념 △동상과 무덤에 갇힌 과거 △백발의 기념이 되어서는 미래와 소통할 수 없다는 우려다.

“역사기념관이 사회 전체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중고 교사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곧 세워질 기념관은 교육적 활용을 염두에 둔 목적성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기초자료를 일선 교사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최호근 교수는 역사기념관의 사회교육이 담아야 할 형식과 지향점으로 △전시활용 교육 △옥외전시와 옥내전시의 연계성 △통일성과 다성성

(多聲性)의 겸비 △아날로그 전시와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균형 △선택적 차원의 기념비적 규모 지향 △토대교육으로서 교사교육을 들었다. 특히 “학교 수업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교육자료 세트를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교육센터 기능의 모범 사례로 최근 교수는 전 세계의 홀로코스 연구·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야드바솀(Yad Vashem)과 미국 워싱턴의 홀로코스트기념관(US Memorial Museum)을 소개한다. 이 두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의 강점은 △원칙과 지침을 토대지식으로 제공하고 그 위에서 미디어별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고안하고 △전 세계 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생산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하며 △아카이브 기반 교육 자료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보급하는 데 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최호근 교수는 “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증인의 육성에 힘쓰지 않는다면 기억의 세대 전승은 불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애써 확보한 과거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 말해 “원본성과 진정성만이 비체험세대를 새로운 증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호근 교수는 △원칙과 지침, 미디어별 교육 프로그램, 원본성 높은 교육자료 제작을 바탕으로 곧 세워질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광역 교육청이나 역사·사회교과 교사모임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

“오늘날의 독립운동가로 정진하겠습니다”

– 청년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



전 인영
1기 청년위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청년위원회 1기 전인영입니다.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위원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해 준 마당에서 신명 나는 춤사위를 남겼습니다. 「독립정신」에 흔적을 남기고, 학술회의 <동아시아 역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기념관 건립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논의, 서울시와 평화통일 교육을 진행 후 자료집,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등의 결과물을 남겼습니다.

1기에는 다양한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직장인으로는 지하철 기관사, 빅데이터/AI 과학자가 있었고, 대학생, 취업준비생으로 동양화, 역사 콘텐츠, 국어국문학, 도시공학 전공자가 있었습니다. 생계와 배움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진 분들을 기억하고 그 삶과 정신 그리고 멋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였습니다.

1기 청년위원회가 꾸려지고 2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서로의 얼과 꿀을 마주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한 후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나갈지 논의했습니다. 다른 단체 청년위원회처럼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본회 위원단만의 활동을 정립해 꽂피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범을 보이는 청년위원회들의 장점을 종합해 본회 청년위원회 활동 지침을 만드는 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안정감을 더하고, 이후 청년위원들에게 잘 정립한 지침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기는 우리만의 활동을 만들어 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탁월한 누군가가 이끌어 가기보다 구성원 모두가 협의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청년위원이 참석하고자 했고, 일을 나눔에서도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배제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되, 각자가 지닌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일만 같이하는 동료 관계를 넘어 벗으로서의 관계를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2기를 비롯해 앞으로 활동할 청년위원에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옮조려 보았습니다. 우리 1기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던진 분들의 뜻과 정신

을 오늘에 맞갖게 풀어내고자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위원회도 이러한 1기보다 잘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엄습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년위원회를 지지하고 눈여겨봐 주신 김자동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진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위원회 첫 모임에서 박덕진 전 사무처장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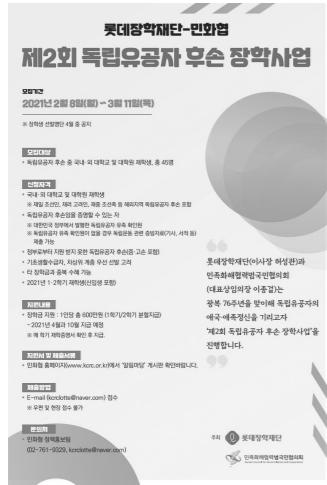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력은 만들어 주지 못해도, 경험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돋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활동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주셨습니다. 본회 회원분들의 따듯한 시선과 포근한 수용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청년위원회에게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기 청년위원회는 수료를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후 기수 청년위원회에게 더 넓고 멀리 보도록 돋는 선배이자 오늘날의 독립운동가로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라가 하지 못한 보훈사업, 우리의 사명”

민화협-롯데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펼쳐

「독립정신」 편집부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4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3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신입생 포함)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민화협과 롯데장학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학금은 1인당 6백만원이고, 4월과 10월 지급될 예정이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독립성금 바친 해외동포 자녀에게도 장학금 수여

“그동안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많이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민화협-롯데장학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은 전체 41명 가운데 14명을 배정하여 총 수혜액의 30%를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러시아, 호주, 카자흐스탄, 독일, 쿠바 등지의 독립 후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이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당시 미주나 멕시코 등, 먼 해외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독립성금으로 바치신 그 후손들의 조상 때문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존립할 수 있었습니다. 총칼로 무장 투쟁한 것 못지않게 사탕수수 농장에서 번 돈을 독립성금으로 애써 바친 그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심사위원장인 이종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은 민화협과 롯데장학재단이 공동으로 펼치는 이 사업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또한 이 장학사업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도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기존 장학사업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김병기 광복회 학술연구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훈 여부에 관계 없이 대상 선정 △전 세계에 흩어진 독립운동가 후손 선발 △역대 최대 규모의 장학금 △직계손뿐만 아니라 외손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 확대 등이 민화협과 롯데장학재단이 공동으로 펼치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의 특징이다. 혁성관 롯데



지난 3월 3일 1차 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심사위원들

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민족화해를 위한 사업에 민간 공익재단으로서 그 소임을 하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보은과 민족화해 징검다리 역할 하게 돼 가슴 뿌듯”

지난 3월 3일에는 민화협과 롯데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 1차 심사위원회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혁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종찬 심사위원장,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병기 광복회 학술원장, 김진 백범 장손자, 원희복 「독립정신」 편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혁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회 장학사업은 기대 이상 성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은과 민족화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 점에 가슴 뿌듯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종찬 심사위원장은 “그동안 이런저런 까닭으로 알려지지 않고 소외된 독립운동가 후손을 우리 심사위원들이 앞으로도 더욱 발굴해 나라에서 미처 하지 못한 보훈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이 시대 정신이요, 역사적 사명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고,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로 하늘에 계신 선열들이 당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자”며 심사위원들을 격려했다.

원희복 심사위원은 “북한 학생들에게도 장학혜택이 가도록 그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혁성관 이사장은 “이미 출발부터 지역과 이념을 초월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일”이라며, 그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화협 집행부 측에 요청했다. 이종찬 심사위원장은 비롯한 모든 심사위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민화협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여는 일이라면서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이전에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지로 간 이민자들이 농장주로부터 채찍을 맞아가면서 주급으로 받은 적은 임금 중 임시정부에 독립성금을 기부한 후손들에게도 장학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이종찬 심사위원장의 제안에 심사위원들은 “그 후손들이 신청을 할 때 그 근거 서류나 오랜 세월로 유실된 경우는, 교민회 인사들의 인우보증 등의 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0년 선발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와 관련 도서, 후손 이름이 각인된 펜을, 지원자 가운데 아쉽게 선발되지 못한 후손들에게는 ‘감사와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당초 계획으로는 선발된 장학생에게 해외역사탐방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무산됐다. 올해에는 선발 장학생 소그룹 활동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학기마다 각 팀에 4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학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화협 홈페이지(www.kcrc.or.kr) 알림마당에 게재된 모집공고 및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국가보훈처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요양지원, 건강·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노후복지 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는 기존의 이동보훈팀과 노후복지 기능을 합쳐서 노후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노후복지서비스제공대상과 지원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보훈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간-유관 기관간 복지네트워크를 튼튼히 구축하여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많은 보훈가족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포함)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대상자 맞춤형 보훈재가복지서비스지원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보훈섬김이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전문기관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는 보훈대상자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보호서비스 지원

치매·증풍, 노인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평소 가족들로부터 수발이 어려워 인근 복지시설에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여가선용활동 지원

건강한 노인세대의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단위 상이군경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건강·문화교실 등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현장민원 처리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각 보훈관서에서 보훈공무원으로 편성된 37개의 이동보훈복지팀이 전국 125여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보훈민원업무 상담·접수처리 및 이동보훈 복지지원 등 근접 서비스를 제공·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던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그 외 지역사회 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지방보훈관서 주관의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

■ 생활수준조사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 등 및 그 유족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조정수당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 생활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조사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4조, 제22조, 제6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34조의2, 제84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 제11조의2, 제16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3조,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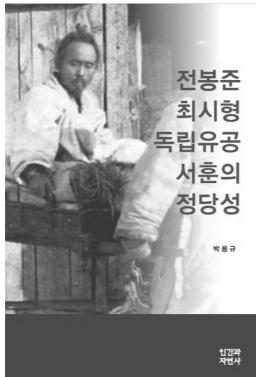
▶ 문의

보훈상담센터 (전화 :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생활조정수당(보상과), 교육지원(보훈과), 요양지원보조(복지과)



『전봉준 최시형 독립유공 서훈의 정당성』

• 지은이 | 박용규 • 쪽수 | 162쪽 • 출판사 | 인간과자연사



“아직도 대한민국은 양반의 나라인가. 독립유공 서훈에서 항일 농민은 차별받고 있다.”

이 책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하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전봉준과 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을 촉구한 책이다.

저자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거병한 2차 동학농민혁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한다. 항일 독립운동인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투쟁의 총사령관이 전봉준이었고, 최고 지도자가 최시형이었다. 전봉준·최시형과 함께 1894년과 1895년에 걸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나 싸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항거하였고, 그 반대와 항거로 인하여 순국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순국한 을미의병(1895)·을사의병(1905)·병오의병(1906)·정미의병(1907)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62년부터 독립유공 서훈을 받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2,671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이에 반해,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항일 농민(전봉준 등)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불공평과 모순이 시정되기를 저자는 바라고 있다.

저자 박용규는 고려대 사학과 박사로, 한글학회 연구위원과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과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 세상을 뒤흔든 여성독립운동가 14인의 초상』

• 지은이 | 김이경 • 그림 | 윤석남 • 쪽수 | 304쪽 • 출판사 | 한겨레출판



기록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힌 여성독립운동가 14인의 삶을 복원하다

이 책은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 윤석남 화백과 김이경 작가가 3·1절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권기옥, 김마리아, 정정화, 김명시, 남자현, 정칠성, 이화림, 박자혜, 김옥련 등 여성독립운동가 14명의 삶을 글과 그림으로 복원했다. 노동운동가·간호사·비행조종사·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무장투쟁운동가 등으로 활약했으나 역사 속에서 단 하나의 그림이나 글로도 남지 못했던 여성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들려준다.

이 책의 여성들은 남성의 ‘조력자’가 아닌 투쟁가로서 각 분야에서 남성들보다 더 담대하고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되살려내기 위해 윤 화백과 김 작가는 수많은 논문과 단행본, 그리고 증언과 회고록 등의 1차 자료를 고증했다. 각 꼭지마다 화백 윤석남이 인물들을 재해석해 전신초상, 상반신 채색초상, 연필 드로잉 초상으로 생생하게 그려냈으며, 작가 김이경은 1인칭·3인칭 시점, 인터뷰, 다큐멘터리, 편지 형식 등 여러 문학적 기법을 활용해 인물별 이야기를 덧붙여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채로운 파노라마로 보여준다.

본회 제1기 청년위원단 수료식



2월 25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제1기 청년위원단의 수료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님께서 청년위원들에게 수료증을 직접 수여하시고 부상으로 『영원한 임시정부 소년』, 『장강일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제1기 청년위원단은 지난 1년간 서울시 후원 ‘청년 참여 중심의 평화·통일 주제 강연’ 활동, ‘독립정신’ 기고, 본 사업회 행사의 카드뉴스 제작 및 SNS 홍보 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국에도 활발하게 활동해준 우리 1기 청년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석 이석영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



2월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영석(穎石) 이석영 선생의 순국 87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이석영 선생은 우당(友堂) 이희영 선생, 성재(省齋) 이시영 선생의 형이자 독립운동가 6형제의 둘째로 독립군의 중심 신흥무관학교의 실질적 설립자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희영 선생의 손자이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이종찬 위원장께서 기념사를 하시고 이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조광한 남양주 시장,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께서 추모사를 하였습니다. 추모장 입구에는 본회가 보낸 조화가 놓였습니다.

이석영 선생은 조선시대 학자이자 명신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11대손으로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의 양자로 입양, 1885년 증광시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승지, 승선, 중추원 의관, 장예원 소경 직 등 관직 생활을 하시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정계에서 은퇴했

습니다. 은퇴 후 남양주에서 기거하다 1910년 생가 6형제 전 가족 40여 명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하셨습니다.

당대 최대 부호(富豪)였던 이석영 선생과 여섯 형제 일가는 전 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쾌척하였습니다. 만주로 망명한 이석영 선생을 비롯한 여섯 형제가 처음 한 사업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를 설립한 일입니다. 경학사는 서간도로 아주한 동포들을 위해 농업을 장려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한 단체입니다. 또한 신흥강습소를 설치해 무장투쟁을 위한 인재 양성에 힘썼고 이 신흥강습소는 1919년 명칭을 신흥무관학교로 변경하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한 졸업생들은 항일투쟁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1920년 김좌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대첩에서 북로군정서군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을 파견한 것이 대표적인 공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자금난으로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 폐교할 수밖에 없었고, 이석영 선생과 여섯 형제 일가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석영 선생께서도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1934년 2월 16일 상하이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이석영 선생께서 서거할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항저우로 피신한 상황이기에 임시로 장례를 치르고 상하이 홍차오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행사는 이석영 선생의 정식 장례행사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날 이종찬 위원장께서는 추모사를 통해 “이 추모식은 87년 만에 영석 이석영 선생의 추모식이 아니라,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며 추모식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변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가 3월 1일부로 이전의 ‘www.kopogo.com’에서 www.kopogo.kr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com의 도메인 등록 기간이 만료되어 우리나라 고유 도메인 .kr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본 사업회 홈페이지 접속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영조 회원,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촉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지난 2월 26일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아드님인 차영조 회원께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최근 극우의 논리가 사회적 문제를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조롱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광복회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산 만화가 윤서인,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논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반일종족주의』를 출간한 이영훈 등 극우의 논리이자 역사 왜곡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촉구 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백 대표는 극우의 논리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자는 취지의 ‘일제찬양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차영조 회원께서는 1962년 윤보선

대통령에게 받은 건국공로훈장증을 확대해 사진에 담은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백 대표와 함께 법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서홍관 회원, 코로나 백신 접종

“하반기부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길 희망”



국립암센터 원장인 서홍관 회원께서 지난 3월 5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홍관 회원의 백신 접종은 3월 8일 「헬스조선」 기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기사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불식하고 직원들이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 접종은 서홍관 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와 직별별 대표 1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솔선수범하여 접종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홍관 회원께서는 접종에 대해 “감염관리실에서 지금은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 먼저 맞기로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한 바이알(병)을 개봉하면 12명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해서

회원 동정

원장인 회원과 임원진, 노조위원장, 간호사, 기사, 약사 등 각 직렬 대표들이 첫 번째 바이알을 열어 함께 맞고 거리두기 상태에서 관찰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서홍관 회원은 “상반기에 순서대로 접종하고 하반기부터 우리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도 변종 같은 변수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고 회원들께 전했습니다.

원희복 회원, '역사정의실천상' 언론부문 수상자 선정

“우리 현대사가 평화와 통일 교육으로
극복되기를 희망”



원희복 회원(왼쪽)과 김원웅 광복회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 신임 편집위원장은 원희복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장이 ‘역사정의실천상’ 언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원희복 편집위원장은 28년 넘게 「파주저널」 객원논설위원으로 글을 써왔고, 지난 2021년 1월 31일 ‘생각하며 읽는 시론’ 코너의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은 한가지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희복 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친일 - 분단 - 냉전으로 이어지는 우리 현대사가 평화·통일 교육으로 극복되기를 바랍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회비에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21년 1월, 2월 회비 납부자 명단 ◆

- 2월 특별회비 납부회원 -

입회원서 및 CMS 자동납입 신청서

이 름		연 락 처 (휴대폰)	
주민번호			
주 소			
e-mail			
은 행 명	은행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후원 계좌 :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최정숙의 3·1운동과 서대문형무소 ④

최정숙(1902.2.10~1977.2.22)은 3·1만세운동에 참가해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이후 박애의 정신을 실천한 의사, 후세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로서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여성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알린 상징적 존재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반 학생이었던 최정숙은 기숙사에서 빠져나와 종로로 항했다. 무교정(무교동)을 거쳐 대한문 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자 그 대열에 함께 참여해 ‘독립만세’를 불렀다. 당시 일제 경찰의 경성여고보 시위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27~28일 사이 최정숙은 친구인 강평국, 고수선, 최은희 등과 독립운동을 상의했다고 되어있다. 경성여고보 학생과 직원들은 시위 주동자로 최정숙, 강평국, 최은희를 꼽았다. 이 보고서에는 최정숙이 “학생들을 이끌며 강평국, 최은희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계획·모의하고, 3월 1일에는 경성여고보 부속 제동여자보통학교로 교수 실습을 가기로 했으나 2월 28일부터 발이 아프다며 기숙사에 누워 있다가 3월 1일 오후 2시쯤 자리를 차고 일어나 학생들을 이끌고 파고다공원으로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정숙은 “생전에 죽을 것을 각오했기에 속옷에 주소, 성명, 학교, 고향, 부모 이름까지 써 붙이고 파고다공원으로 향하다가 독립선언식을 마치고 나오는 인파와 마주쳐 대열에 합류해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3월 5일 2차 만세시위가 벌어졌다. 경성여고보 학생들은 ‘일편단심’을 뜻하는 수천여 개의 뺨간 머리띠를 만들어 각 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2차 만세시위에 사용하도록 했다. 5일 새벽 이들은 사감의 눈을 피해 남대문역으로 나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최정숙은 “나는 사상범이자 써를 대표로 올라 있기 때문에

면회가 금지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사실은 나보다 더 옥 수고한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주동으로 몰린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최정숙은 경무총감부에서 고문을 받아 서대문형무소로 넘겨져 3월 20일 풀려났다. 1919년 3월 25일은 경성여고보의 졸업식 날이었다. 최정숙은 일본 국가를 부르며 참석할 수 없다며 고향인 제주로 내려왔다. 그러나 4월 15일 경성지방검사국의 소환 통보를 받고 불들려와 서대문형무소에 재수감되었다. 그녀는 학생 결사대 주모자로 몰려 거의 매일 고문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제주로 귀향했으나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1운동 참여와 서대문형무소 수감은 이후 최정숙이 애국계몽운동의 삶을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정숙은 고향 제주에서 여성계몽운동을 펼치며 명신학교 설립,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목포 소화학교장의 부탁으로 목포와 제주를 오가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후 동생 최계숙과 막역한 친구 강평국의 죽음은 그녀를 의사의 길로 이끌게 하였다. 1939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 의사 면허를 받은 그는 성모병원에서 일하다가 1944년 10월, 극빈환자들의 헌신처인 ‘정화의원’을 개원해 무료로 진료하는 지역봉사활동에도 힘썼다.

나라사랑정신과 교육, 나눔을 실천한 그녀는 1964년 제주도 초대 교육감(우리나라 최초 여성교육감)으로 선출되었다. 최정숙은 일생을 여성문맹퇴치와 애국계몽활동으로 일관하며 민족과 근대, 여성, 저항의 교집합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했다. 1993년 3·1절에 대통령 표창이 추서되었다. 2019년 4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선정하는 ‘독립 영웅’에도 이름을 올렸다.

학술회의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일시 : 2021년 4월 9일(금) 오후 1시~5시

장소 : 내일신문 지하 3층 강당

주제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위상과 역할

발제 : 김희곤 안동대 명예교수(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

토론 : 최기영 교수(서강대 사학과)

주제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운영에 대한 제안

발제 : 박소현 교수(서울과기대)

토론 : 기량(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장)

주제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사회교육활동

발제 : 최호근 교수(고려대 사학과)

토론 : 배성호 교사(전국초등사회교과모임 공동대표)

종합토론

좌장 :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

주최 / 주관



후원



국가보훈처 광복회 시민모임 독립

